

社說

“자기발전 위한 계기로 활용하라”

— 하계방학을 맞이하는 경희인의 자세

하계방학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기말고사를 조마조마하게 치르면서도 막연히 부른 방학의 기대감은 신입생이든 더욱 갈수록 못할지도 모르겠다.

대학의 방학이 전체 학사일정의 반에 달하는 만큼 방학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할 것인가는 누구에게나 적잖이 고민스러운 문제일 것이다.

통상 학기중에는 학과수업과 학사일정 등으로 쪼그라들기 어려운 만큼 방학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계기일 것이다.

선뜻 생각하면 전공과목의 심화학습과 기타 교양강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활동도 자기 다양한 준비를 할 것이다.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간 부족했던 어학에 몰두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양한 취미는 독서를 통해 자기 발전의 길을 선택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 면허시험, 기타 자격시험 등 사회에 진출하기 전의 기능을 획득할 계기로 방학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농촌활동, 공장활동 등 현장체험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한 노동의 의미와 민중들의 삶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방학은 일상생활의 연장이며 자신을 연마·발전시키는 계기로써 의미가 있다. 어떤 계획을 세우든 일단 생활과 성실한 자세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예전에 비해 기능훈련의 폭이 넓어지고 자기개발의 기회가 넓어진 반면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자신 또한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듯 시간을 보내서도 안될 것이다.

학생생활에 있어 진정한 자신의 세계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기회가 될 방학으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사고와 건문을 넓히고 현실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는 대학인으로서, 경희인으로서 누구나 절감하는 문제일 것이며 이는 자신의 발전을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와도 다를 수 없다.

이를 위해서 방학을 계획한다면 방학을 더없이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대학이, 대학인이 걸어온 역사적 과제, 또한 막중한 임무를 인식하고 자신을 끝까지 성찰해 나가야겠다. 대학의 진정한 의무가 무엇인지, 사회는 우리 대학인의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한다면 방학이 결코 계획만이 무성한, 생각만 서두르는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대학인으로서의 건강하고 성실한 생활을 당부한다.

“진실의 실체를 보여야 할 때이다”

— 정부의 최근 시국수습책을 보며

이제는 가식의 허울을 벗고 진실의 실체를 보여야 할 때다. 진실을 국민앞에 내 보이는 것만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러나 현정권은 민주라는 가식의 허울속에 들어앉아 그 실체를 보이지 않음에 탄압의 강도를 조절하는 조처들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5월28일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생중계된 대통령의 당정연설의적소에서 발표된 시국수습책 내용을 보면서 현정권의 안일한 자세에 또 다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는 평화적 시위의 보장과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안정, 내각제개헌 포기 등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그의 발표 내용을 접하며 냉소를 보였다. 이는 시국 수습책이 발표된 다음날 모일간지에서 실사한 여론조사가 이를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냉소는 어디에서 연유 하는가. ‘보통사람’이라는 기치 아래 등장한 6공화국은 집권 후 시간이 흐를수록 보통사람과 관계없는 아니 보통사람의 탄압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통령은 “6.29선언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여는 역사적 전기가 되었고 그로부터 직선제에 의한 정부가 출범해 언론과 정치활동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과 노동3권이 보장되고 모든 부분에 걸쳐 억압이 사라지고 권위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6.29가 선언된지 4년이 지난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국회에선 거대여당의 독주로 날치기 법안이 난무하고 공장에서 작업장이 독살터라, 거리에선 파업진압의 산물인 최루가스 시위의 호흡을 압박해 오고 있으며, 학내에선 ‘다도 노대’를 외치며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형식만 갖췄을뿐 권력과 대자본이 통제하는 신문과 방송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간교하고 조직적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음이 강대군 다살과 김기철씨의 유서를 둘러싼 ‘유서대립사태’에서 검찰을 중립적 보도라는 미명하에 교묘히 옹호하는 보도태도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평화적 시위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김규경양의 죽음을 무마해 나가는 과정 또한 일방적통행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정권이 민주화를 향해 가고 있다면 1천3백여명에 달하는 시국수습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또한 독립된 사법부가 공정한 비판을 내내리는지, 아무리 대통령이 “부동산문제만 큰 해결해 10년안에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해도 치솟는 집값, 전세값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는가.

분명 재연전대 노정권은 직접선거에 의해 출범된 국민의 정부라고 자만하지 말라. 민선에 의해 구성된 정부라 해서 군사정권인 5공화국과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제 언론의 상업주의와 권언유착의 병폐가 단지 ‘도를 넘은’ 차원을 넘어 노골적인 폭력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졌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 주 발간된 “시사저널” 6월6일자 (통권84호)의 “시사안테나”라는 고정란을 보며 앞서 말한 ‘폭력’이란 표현의 의미는 더욱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긴다.

“외신보도 확인받은 인용 ‘발생’” — 홍콩신문 분신오보 본지 사진기자 현장잡아 — 라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 하기에 앞서 문제가 된 그 ‘외신’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 5월18일 故강경대열사의 장례식이 있던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이경순씨의 분신현장.

“...나는 셔츠를 벗어내고 상의를 벗어든 또 한사람의 한국인과 함께 그 불을 끄려고 했다. 그때 어떤 사람(대학생으로 생각됨)이 나를 끌어내리 위해 뒤에서 잡았다. 그는 이 여인이 또다른 순교자(열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일단 몸이 풀리자 다시 파고 들어

가면서 의사를 데려오라고 소리쳤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시사저널 기사인용)

영국 출신의 브루스 체스먼이라는 사람이 쓴 이 기사는 홍콩의 유력 영자지 ‘south china Morning post’ 5월22일자에 실린 바 있다.

시사저널사측은 사진기자 김봉규씨가 찍은 특종사진을 지면의 2/3크기로 싣고 부루스씨가 쓴 기사의 허위·과장성을 비판했다. 또한 ‘문화방송’과 ‘중앙일

보’ 측에서 앞의 보도를 즉각 인용·보도한 사실과 관련, ‘영터리’ 보도를 우리 언론이 아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성토했고 있다.

언론매체의 독자이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측에서 앞의 보도를 즉각 인용·보도한 사실과 관련, ‘영터리’ 보도를 우리 언론이 아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성토했고 있다.

언론매체의 독자이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측에서 앞의 보도를 즉각 인용·보도한 사실과 관련, ‘영터리’ 보도를 우리 언론이 아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성토했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편파적 보도를 감행(?)함으로써 제때 행마를 보여준 두 언론사는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오보’로 인한 이후의 심각한 사태를 부분적이나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 사실이 왜곡된 채로 온존되었다면 정부와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는 ‘외환의 파문은 더욱 증폭되었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사회의 각종 환부를 언론이라는 ‘칼’로 다스린다고 할 때 ‘칼을 권자는 누가 다스려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언론이라는 ‘칼’이 올바른 관점을 세우지 못하고 ‘칼날’을 어중간하게 겨룰 때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 사후 심판의 감정을 감출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재야·민주세력에게만 유독 ‘반공’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 언론사의 책임있는 사람들에 묻고 싶다.

“지금 당신들의 칼끝은 어느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다. (특집부)



무책임한 언론 비판한 또다른 언론의 칼

같은 무책임하고 주관적인 보도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접할 권리를 침해한 범죄가 아니 할 수 없다.

아울러 사실의 앞뒤사정을 정확하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술’을 엮어 왔구나

자주적 통일의 촉매

— 북한의 UN가입 신청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당국이 지난 5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UN가입신청’을 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당국은 그동안 남한의 단독가입을 규탄하며, 이를 ‘조선’ 두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저지해왔던 것에 반해 이번 유엔가입신청은 남·북한당국 및 남한내 통일운동세력이 적지않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는 북한이 ‘두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만 일방적으로 UN에 가입하는 방침에 대한 “UN내에서 조선문제가 불이익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한정부는 즉각 환영의사를 표명하며 동시기입 내지는 단일의식 가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소련 등 주요국들도 북한의 태도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오던 중국이 최근 자구 및 서방국가와의 교류확대로 북한 입장을 중전처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지 않는데 이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자국책이라는 논평을 덧붙이기도 한다.

아직까지 남·북당국이 서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남·북한 UN가입 및 동시기입은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간 UN의 역할과 현재 UN의 모습을 비교해보면서 이번 북한의 UN가입신청을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전쟁, 걸프전 등 예초의 이념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소와 평화정착이라는 UN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체제 내에서 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못했다. 또한 걸프전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상태에서 이번 북한의 발표조차 미국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북한의 발표가 UN가입자체의 의미조차 ‘자주적’ 입장에 서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UN가입에 따라 남북관계도 많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해안정착’체제가 남북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를 떠나 가속화될 전망이다. 남한은 ‘주한 유엔사령부’가 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는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격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민중이 스스로 통일의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발표를 받아들이는 남한당국의 자세도 좀더 민족적, 자주적이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북한의 성명발표는 한반도내 군축평화와 남북당국의 자주적 통일의 촉매로써 UN가입을 바라보는 것으로써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동·서독과 남·북 예언이 UN가입이후 통일이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를 남·북한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외교적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남북한이 진정한 통일의 의지를 갖고 서로를 적대

북한입장 변화, 국제정세 따른 필연적 결정 평화협정 및 군축으로 실질적 교류 확대해야

시하지 않는 자주적인 통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만환記者)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5월 28일 5월 29일 5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2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3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4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5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6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7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6월의 문화달력

光陰如流 6월은 유월입니다.

어느새 6월입니다.
강물이 흘러내리듯 그렇게
속절없이 지나가버리는 것이 시간이지만
특별하게 짧은 날들의 시간은
바쁘지만 빠르게 사라져 가버립니다.
기말시험과 종강,
그리고 나면 여름방학이군요.
이번 여름방학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습니까?
각종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으로
특별한 여름을 보내게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에도 도서관의 만원 열기는
뜨거운 여름의 태양만큼 뜨겁게 할 것입니다.
좋은 계절, 좋은 계획으로
보람찬 여름을 여가하십시오.

본관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생활을 알리기 위해
현대 그룹이 제공해 드리는 본관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 있으면 현대 문화
사(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746-2971)로 알려주세요
상당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